

전통주거공간 분석을 통한 한국형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Korean Style Apartment House through Analysis of Traditional Residences

안경은* / Ahn, Kyoung-Eun

민찬홍** / Min, Chan-H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ance apartment houses in quality as a residence through revitalization of tradition and the procedures are as follows:

The first procedure is theoretical contemplation.

The second procedure is analysis of the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that gives a starting point of introspection of it without cease at the stage of formal following or pattern application in revitalizing tradition in the apartment houses.

And the third procedure is to select and suggest aspects applicable to developing Korean style apartment houses. The suggest is embodied by a plane figure of 55 *pyong* type apartment house after selecting the concrete development aspects with approaches such as arrangement and interior space analysis, behavior analysis and space division and design analysis.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at it suggests a possibility of various approaches other than formal following or pattern application in revitalizing tradition in a new Korean type apartment house, that it gives another selection to diversifying consumers' patterns and that it helps recognize and develop our tradition in this age of cultural nationalism.

키워드 : 한국형 아파트, 전통주거공간 분석, 개발적용요소 선정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공간'이란 역사적·인류학적으로 문화를 표현해 주는 중요항목중의 하나이다.

즉 주거공간은 한 시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방식을 그대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논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되며, 그것이 시지각적인 형태로써 구체적인 건축물로 표출되어 그 시대의 조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자들은 주거공간에 대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주거공간이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인 공간구성으로 발전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또한 사회가 산업화와 과학화를 통해 변화되는 과정에서 주거공간은 빠르게 대응하여 왔으며 현재 주거공간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있어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설비차원을 꼽을 수 있다.

Home-Automation으로 모든 기능들이 거의 자동으로 조절되는

프로그램화 주거개념(인텔리전트 빌딩 등)은 설비를 통한 주거공간의 기능적 발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를 소비자의 시대라고 이름 붙일 만큼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비자¹⁾들은 주거공간에 대하여 기능적 인간족 이외에 + α 를 요구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은 주택보급률의 35%를 넘으므로 해서²⁾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동안 보급되어온 아파트는 근대화 과정에서 보여졌던 서구문화의 급격한 도입에 의한 영향으로 전통주거공간에서의 생활습관 등에 대한 전통성이 단절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30여 년간 주택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인구의 증가와 도시집중 등의 영향으로) 정책적으로 질보다는 양을 우선 시하여 거주자들의 의식과 요구가 반영될 여유가 없이 획일적인 아파트를 공급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반하여, 1970

1)주택을 구입하여 그 공간에서 생활하게되는 거주자를 뜻한다.<연구자주>
2)1992년 서울시의 경우 단독주택 46%, 아파트 35%, 연립 13%, 다세대 3%, 기타 3%의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시 기본계획」 1997, 서울특별시, p.211

* 정회원, 서울대학 실내디자인과 강사

** 이사,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년대에 변화된 아파트 바닥구조의 온돌화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양식과 기후에 맞는 독자적인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서구문화 유입의 산물인 아파트를 우리의 생활습관에 맞도록 변화시킨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주거문화를 형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생활양식은 한 시대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전통성 추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함이다. 현재 변화되는 사회의 문화경향 중 '문화적 민족주의'는 점차 국적을 잃고 보편화되어 가는 생활양식에 반하여 각 민족과 국가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지키며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식변화로, 이에 따른 전통성은 추구되어야 한다.

그 동안 아파트 주거공간에서 전통성 추구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통주거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의 출발이라기 보다는 형태적 답습이나 패턴의 응용도입 등으로 표현되어 전통성 추구의 한계를 보여 주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거공간의 개념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전통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전통주거공간 분석을 통한 개발요소 선정 및 그것의 공간적용을 통한 아파트평면 개발로 한다.

전통주거공간 분석과 한국형 아파트 개발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주거공간의 형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그 제반요소들의 변화경향을 고찰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형성 배경과 그것의 변화과정을 고찰한다.

전통주거공간의 분석 범위는 주거공간 형성과정에서 배치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끼친 사상적 특성 및 내부공간 특성과 행위 및 영역구분에 따른 특성을 살핀다.

이러한 전통주거공간의 분석대상으로는 조선시대의 중·상류주택과 민가를 포함한다. 부분적으로는 현재의 아파트 평면과 비교분석을 하며, 앞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요구사항도 동시에 살핀다.

결론은 앞서 고찰한 바를 바탕으로 한 개발적용요소 선정 및 제안 단계로 개발적용요소들을 각각 배치 및 내부공간분석, 행위분석 및 영역구분, 의장분석을 통해 선정하고 그것을 아파트 주거공간에 적용, 구체적인 평면(55평형) 설계안을 통하여 제안한다.

2. 한국형 아파트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2.1.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제반요소의 변화

(1) 생활양식 및 의식의 변화

1)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사람들의 가치관은 크게 개성의 표출, 탈물질화 성향, 문화지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집을 소유한다는 의식보다는 생활의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해지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개성표현 현상이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외형은 물론 대량 공급되는 집합주택에서의 내부공간을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성과 다용도 공간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2) 여성들은 지금까지 유교적 관념에서 탈피하여 독립된 객체로서의 자리를 구축하면서 사회 참여가 보편화 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공간 내에서도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 가사노동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즉 가족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이 고려된 동선에 의한 주거공간 계획이 필요하다.

(2) 문화적 변화

21세기에는 범세계적인 생활양식이 더욱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각 민족과 지역의 독창성, 주체성을 지키며 문화를 발전시키려는 이른바 문화적 민족주의³⁾가 하나의 주요 경향으로 대두될 것이다.

주거공간이 삶의 문화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건축 공간문화의 장(場)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 문화적 민족주의가 강조될 미래에는 주거공간이 민족의 주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3) 과학 기술의 변화

2.2. 우리나라 아파트의 형성과 변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형성의 본격화는 1962년 마포 아파트를 시작으로 하였으며 새로운 주거형태로 정착되어 30여년이 경과해 오는 동안의 변화과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60년대 : 본격적인 APT개념의 도입시기로 전통적인 좌식생활에 거실개념을 도입한 입식 생활이 소개되었다.

2) 1970년대 : 도시로 집중된 인구에 대한 분산정책 전개 시기로 부엌이 완전 입식화 되고 거실이 주거의 중심공간으로 정착되었으며 욕실과 변기, 세면대가 통합되어 내부에 고정되었다.

3) 1980년대 : 주거유형의 다양화 시기로 선택사양제도 도입 및 2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등장하고 Radiator를 중심으로 한 입식 중심의 주거공간이 많은 시행착오 끝에 거실까지 온돌화 되면서 좌식생활과 입식생활을 혼합한 평면이 제안되었다.

4) 1990년대 : 단위세대의 물량공급 위주보다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내부 및 외부공간,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서 주상복합건물, 인텔리전트 빌딩, 테마아파트(ex:대우“환경 & 건강중시형 아파트”,삼성“한국형 아파트”,선경“가변형 아파트”)등의 개발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기대되는 아파트 유형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한국인의 전통생활 습관중 지속적인 민족적 특성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형 아파트 개발이 필요하다.

3. 전통주거공간 분석

3.1. 배치 및 내부공간 특성

(1) 배치특성

전통주거공간의 배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주적 이미지의 사상으로 음양오행사상, 풍수도참사상, 도사상등

3) 존 나이스비트·패트리셔에버딘 공저, 메가트렌드 2000, 1990, p.135

이 있으며 종교적 사상으로 유교적인 요소가 있다.

1) 음양오행 및 풍수·도참사상

전통주거공간에서 음양오행 및 풍수사상의 적용은 집터를 고르는 일에서 부터 집터가 선정된 후 건물의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일로 이의 현대적 표현은 아파트의 단지 배치 계획, 단위 주호의 결합, 단지 경관조성 등에 적용되어 표현되고 있으나 이러한 계획 부분은 아파트평면 개발보다 확대된 건축계획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결론부의 개발적용요소 선정 단계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 도사상과 자연주의

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선조들의 자연주의 사상은 주택의 외부공간을 해석하는데 있어 정자와 연못을 두는 누정(樓亭)건축을 발달 시켰으며 주택의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대청의 앞, 뒤를 개방시켜서 앞산, 뒷산을 바라보며 항상 자연을 벗삼아 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유교사상

유교사상의 특성 중 하나는 남녀의 엄격한 구별로,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과 함께 삼강오륜 중 남녀유별(男女有別)항목을 내세워 여인들을 규방에 은폐하고 삼종지례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주거공간에서도 크게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동(別棟)으로 두어 남녀를 격리시켰으며 작게는 안방과 사랑방, 내측(內側)과 외측(外側)을 두게 되었다.

(2) 내부공간특성

1) 공간의 환원성

주거생활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필요할 때는 펴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면서 공간을 최대한 넓고 쾌적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해 왔다. 취침공간의 이부자리, 식사공간의 밥상, 기타 업무나 접대공간의 방석, 각 실을 구분하는 창호 등, 이러한 '환원'요소들은 입체물의 평면화, 구조물의 환원, 전계물의 축소 등으로 공간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한 선조들의 생활 지혜로 보여진다.

2) 공간의 연속성과 관조성

공간의 연속성이란 연결된 공간의 변화 속에서 지각되는 속성이다. 전통주거공간에서는 담을 경계로 대문을 통하고, 마당, 마루 등의 매개공간을 통해 안채와 사랑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주거공간은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진행의 방향을 바꾸거나 단의 차이를 둬으로써 공간의 연속성을 다양하게 느끼게 한다.

관조성이란 공간을 표면적 형식이나 미적 분석원리에 의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내재하는 정신적 의미 또는 가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전통주거공간은 비워진 공간이 채워진 공간보다 많아 여백의 미가 강조됨으로써 허허롭지만 여유있는 공간을 이루고 있다.

3.2. 주거공간의 행위 및 영역구분에 따른 특성

(1) 행위에 따른 공간 특성

1) 온돌(방)

전통주거공간에서 방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용도의 공간이다.

방과 방사이의 장치문은 방을 여러 개로 사용하려는 기능적 목적 이외에 문지방으로 거리감, 상하의식을 상징하였다.

바닥은 온돌구조이며, 천장은 종이반자 천장이 대부분이다. 구조체가 기둥이 되고 많은 부분이 창호로 구성되어지는 전통주거공간의 구조 특성상 벽은 그리 많지 않다. 벽의 대부분은 심벽구조로, 벽의 한부분을 이루는 개구부는 주로 대청을 향한다. 이는 집의 규모에 따라 다르나 대개 4~8짝의 분합문으로, 여름에는 2짝씩 접어 들쇠에 걸어 올려 두었다.

2) 마루(대청)

대청마루는 한 집의 중심공간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의례를 행하는 장소로, 가족들의 모임장소로, 식사공간으로, 여름의 피서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며, 대청의 천장은 대부분 서까래가 그대로 노출되고 대들보, 도리 등의 모든 구조재가 실내에서 한눈에 보이는 연등천장구조였다. 대청의 입면구조는 창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청이외에 마루의 종류 중 주로 사랑채에 설치하였던 누마루는 여름에 풍취를 더해주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사랑방 또는 문방(文房) 옆으로 낸 누마루는 방보다 30cm정도 높게 설치하고 삼면에 벽이 없이 기둥만 노출되어 이늑함과 안정감을 주기 위해 머름높이의 난간을 설치한다.

3) 부엌

부엌은 집안식구들의 식사준비를 위한 취사, 조리 등의 가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 일 뿐만 아니라 저장 공간으로서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에 위치하였으며, 안주인(여성)의 전용 공간이었으므로 유교사상 중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에 입각하여 그 공간에 대한 양성화에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으며 주부의 가사행위에 따른 편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주방, 장독대, 곳간 등의 동떨어진 동선구성과 조리행위의 중심인 부뚜막이 45cm안팎의 높이로 구성되어 인간공학을 등한시켰다는 점등)

4) 마당

마당은 반 외부공간인 대청마루 등과 함께 생활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행위들을 수용하여 왔다. 생산기능, 작업기능, 의식기능, 정서적 기능, 채광과 통풍을 위한 기능, 통로의 기능, 공간의 분리기능 등을 담당하였던 마당은 다용도로 사용되는 옥외 생활공간이다. 다시말해 주택의 규모가 클 경우는 빈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컸고, 주택의 규모가 작을 경우는 다양한 행위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2) 유교사상에 따른 영역구분

신분제도에 의한 상·하의 구분은 주택안에서 상(上)에 해당하는 안채와 사랑채, 하(下)에 해당하는 행랑채의 영역구분을 보여준다.

안채는 가족공간으로서 여주인의 일상공간이 된다. 이 공간은 주

택의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안방, 옷방, 대청, 건너방, 부엌 등으로 구성되어 안주인의 관할 하에 가족의 衣·食·住를 전달하는 전통주거 공간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사랑채의 본질적 의미는 여성공간과 대비되는 남성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기능 포용의 공간으로 남자들의 활동무대 역할을 담당(유교적 소양을 닦고, 혈연 혹은 문벌간의 의견 모임, 유교적 이상향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간)하였다. 이 공간은 주택의 바깥쪽에 자리잡으며 사랑방, 대청, 작은사랑, 누마루, 침방, 서고 등으로 구성되어 졌다. 즉 사랑채는 주거에 있어서 사회적 기구 내지는 조직을 보완해 주는 '사회적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행랑채는 하인들을 위한 거처이므로 서민 주택의 내부공간과 동일하며 양반을 상징하는 솟을대문을 중심으로 좌우로 병렬되어 있었던 행랑채는 행랑방과 광들로 내부공간이 형성되었고 남성 청지기와 머슴들의 침소 및 작업 방으로 사용되었다.

(3) 공간의 의장 특성

시대를 초월한 한국의 전통적 조형개념의 특성은 자연의 질서 체계에 순응하고 자연과 융합하려는 순수한 의도의 발현이라고 일축할 수 있다.

전통주거공간에서 조형개념의 표현은 의장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자연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인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거나, 조형물의 형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형까지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포용성과 인공적인 형태나 장식을 줄이고 원재료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과 대립되지 않는 부드러운 조화를 만들어 내는 탈기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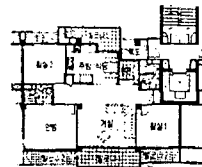
4. 한국형 아파트 개발 적용요소 선정 및 제안

전통주거공간의 분석결과 그것의 특성을 이루는 물리적 요소로 마당, 대청마루, 부엌, 채 구분(영역구분), 창호 마감재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 및 내부공간, 행위 분석 및 영역구분, 의장분석 등을 통한 접근방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평면에 적용시켜 한국형 아파트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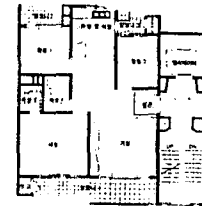
4.1. 배치 및 내부공간 분석을 통한 접근

아파트의 평면구성상 배치특성을 살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 주호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현관문을 통과하여 진입부에 해당하는 현관을 거치고 거실로 들어가게 된다. 거실을 중심으로 하여 침실, 욕실, 주방 등 각 실이 배치되며 각각의 전면부에 발코니 정도가 설치된다. 이렇듯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거실 하나를 중심으로 각각의 독립 공간이 존재하며, 각각의 공간들은 고정된 벽과 폐쇄형 문으로 완전 구분되어지고 주어진 공간은 그 절대성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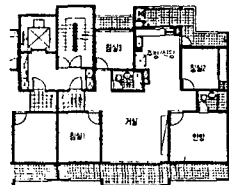
한편 <그림 4>에서 보여지는 전통주거공간의 배치특성을 살펴 보면 주택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대문을 통하여 실내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마당과 마루를 거치게 되며 마당과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 사랑방, 부엌 등 각 실이 배치되고, 안채와 사랑채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마당과 마루를 매개로 하여 각 실들은 공간과 공간의 연속성을 띄게 된다. 이렇듯 전통주거공간은 매개공간과 공간의 전이과정(Process)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체험의 중요성을 극대화한 배치인 것이며 이러한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마당과 마루(대청)는 주어진 공간의 절대성을 넘어서 다용도의 공간(식사실, 연회실, 접객실 등)으로 활용됨으로서 공간의 다기능성(활용성)을 보여준다. 이는 창호의 개폐를 통한 실과 실의 분리와 통합뿐만 아니라, 실내·외의 분리와 통합이 가능한 가변성과 더불어 전통주거 내부공간의 구성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동아 아파트 38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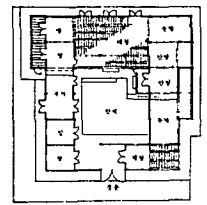


-우방 아파트 3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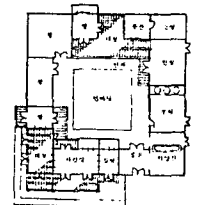


-두산 아파트 45평

<그림 1> 아파트의 공간배치



-예산 추사고택(안채, 사랑채 분리형)



-강릉 권세가안채, 사랑채 일체형)

<그림 2> 전통주택의 공간배치

2장에서 살핀 제반요소들의 변화추이를 볼 때 공간의 다기능성 및 가변성에 대한 요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전통주거공간의 배치 및 내부공간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아파트개발요소로 마당, 마루(대청), 창호를 선정하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적용, 제안한다.

(1) 마당

- 1) 내부와 외부의 매개공간으로 적용제안
- 2) 진입공간 및 다용도 공간과의 연계공간으로 적용제안
- 3) 자연친화 공간으로 적용제안

(2) 마루(대청)

1) 단위실 확장 및 내·외부 연계 기능으로서 툃마루와 누마루 적용제안 : 마당에서 별실로의 진입 시, 마당에서 거실로의 진입시 내·외부의 연계공간으로 툃마루를 적용 제안한다.

거실 및 침실 전면부 발코니에 확장공간으로 툇마루를 제안하고, 안방 발코니에 누마루를 적용해(전통주거공간의 누마루처럼 방바닥보다 30cm 정도 높게 설치하고 발코니 핸드레일은 머름으로 대신한다) 외부를 관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안하며 누마루의 하부는 수납공간으로 제안한다.

2) 다목적 거실기능으로서 대청의 적용제안 : 아파트 평면에서의 거실은 인접한 각 실들과 벽으로 구분되므로 그 공간의 확대축소가 불가능하나 전통주거공간에서 대청을 중심으로 배치된 각 실들의 상호는 대청에 대해 개방적이고 사분합문의 구성 특성상 공간의 확대사용이 가능한 가변성을 가진다. 따라서 아파트 평면에서 거실을 중심으로 한 각 실들, 특히 안방과 거실과의 공간구분을 함에 있어 상호를 통해 가변적으로 계획(관혼상제의식으로 인한 다수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시 안방의 분합문 조작을 통해 거실공간 확대사용) 하고 마당과 인접거리에 배치하므로써 공간의 활용성을 적용 제안한다.

(3) 상호

개구부가 많은 전통 주거공간에서는 창과 문을 엄격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전통주거공간에서 문의 종류로는 판장문, 골판문, 도듬문, 장지문, 맹장지문, 분합문 등이 있으며, 창외 종류로는 봉창, 화창, 광창, 교창등 이 있다. 이 중 개발요소로 장지문·분합문, 교창을 선정하며 그 적용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간의 환원 및 공간활용의 극대화실현을 위한 장지문·분합문 적용제안 : 장지문은 종이와 띠살로 만들어 내부로 유입되는 강한 빛을 완충시키며, 또 방과 방 사이에 칸막이용으로 사용되었던 문이다⁴⁾. 장지문은 모두 열어 놓으면 건너방에서 안방까지 시야가 연결되었다. 이는 공간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이외에 한 공간내에서도 필요에 따른 사용범위가 변화 가능하므로 겨울철에 난방효과를 높이는 기능(장지문으로 구분된 공간의 온돌바닥 구조를 달리 하므로 해서 한 칸 한 칸 난방이 가능)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제안하는 평면의 침실2와 침실3의 구분 벽에 장지문을 설치하여 필요(가족구성원의 변화 즉 자녀 성장 시 출가나 유학,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인해)에 따라 하나의 공간으로 혹은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가변사용 가능성을 제안한다. 안방과 침실1의 경우도 장지문으로 공간구분하여 부부의 공간활용도에 따라 문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제안한다.

대청에 해당하는 거실과 안방의 공간구분을 벽이 아닌 사분합문으로 대체하여 거실에서 일어나는 비일상적 행사시(관혼상제 의식등)에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고 개방을 통한 공간의 연속성 표현으로 적용 제안한다.

2) 반 폐쇄감 및 공간의 연속성 실현으로서 교창의 적용제안
교창이온 부엌의 벽이나 광의 벽에 높이 설치하거나, 전통주거공

간의 정면 대청의 분합문 상부에 가로로 설치하는 창으로 장방형의 울거미를 짜고 살을 45도 경사각으로 교차시켜 짜 넣는 창을 말한다. 현재 아파트공간에서 각 실로 진입하는 문이 그 형태 특성상 폐쇄감 뿐만 아니라 문선위의 벽 처리로 인해 그 공간을 이외의 공간과 단절된 독립 공간으로 존재하게 한다.

따라서 문틀을 천장까지 연장시키고 문선위의 벽을 교창으로 처리함으로써 빛을 통한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공간의 완전 폐쇄감을 해소하도록 적용 제안한다.

4.2. 행위분석 및 영역구분을 통한 접근

(1) 일상행위 분석을 통한 접근

1) 취침행위공간

전통주거공간에서의 취침공간은 남녀 및 세대구분에 의해 이루어 졌다면 아파트에서의 취침공간은 프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주로 안방을 중심으로 한 부부침실과 자녀실 등으로 분리 배치된다.

기존 아파트평면에서는 안방이 주로 전면 배치되나 그것이 주로 침실과 한실로 구분되어 침실은 부부의 취침공간으로, 한실은 주로 일반실로 사용됨으로 경우에 따른 공간의 분리, 통합을 장지문을 통하여 적용제안하고 그 배치는 부부침실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후면배치를 제안한다. 또한 아파트 평면에서 문제시되는 손님 침실이나 확대가족구성원의 경우 노부모실 등을 부부침실과 떨어진 별실을 통하여 제안한다.

2) 가사행위공간

주거공간에서의 가사행위는 주로 부엌을 중심으로 한 취사행위와 세탁행위로 나뉘어진다. 아파트에서의 가사행위 공간인 주방과 세탁공간(건조실, 다림질 실 등 포함)의 배치 및 다용도 공간의 응용을 통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아파트평면에서 주방은 실내화 되어 동선단축 및 효율적 가사작업이 가능해 졌으나 우리 나라 조리문화의 특성상 바깥공간 활용에 대한 요구가 크다. 따라서 주방의 배치는 주 출입구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또한 다용도공간과 근접거리에 제안한다. 이는 주방이 거실과 안방 등과 인접거리에 배치되어야 하는 요구 외에도 가사업무가 가족구성원 모두의 행위로 점차 의식이 바뀌어 감에 따라 각 실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하고 주 출입구에서의 직접적인 동선연결이 요구되는데 이는 주방이 주거공간에서 일상물품의 반입이 가장 많은 곳이며 쓰레기 반출도 빈번한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용도공간으로서 마당에 인접한 거리에 배치하여 냄새나 연기가 나는 음식 조리 시, 비 일상적 행사(관혼상제 의식과 관련된) 준비 시, 혹은 김장 등의 불규칙적인 특별 조리 시에 확대공간으로 활용공간으로 제안한다.

다용도 공간의 세탁과 관련된 대형세탁 행위 공간, 건조공간으로 활용을 제안한다.

3) 식사행위공간

4)박영순외 공저, 우리옛집 이야기, 1998, p.104

5)박영순 외 공저, 우리옛집 이야기, 1998, p.110

주거공간에서 식사실은 거실과 더불어 점차 가족의 단란장소 등으로 그 기능이 확대 되어감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 주거공간에서는 식사행위가 주로 방과 대청마루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아파트에서는 주방과 연결된 식탁공간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대청마루의 기능으로 제안한 거실과 인접거리에 식사실을 두고 그것을 전면배치 하여 가족단란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 적용시키고, 별채로부터도 진입 공간으로서 마당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적용 제안한다.

4) 위생행위공간

주거공간에서의 위생행위로는 목욕, 세면, 배설 등이 있는데 전통주거공간에서는 각각의 공간들이 분리되어 있어(목욕: 냇가, 세면: 툇마루, 배설: 뒷간 등으로) 동선구성상 편리성이 결여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선조들의 전통생활 습관 중에는 목욕문화가 그리 발달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위생에 대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평면은 이러한 위생행위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다고 생각되어 지며, 그 시설들을 한 공간 내에 통합배치 하므로 해서 편리성을 꾀하고 있다.

위생행위 공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아파트 평면배치를 적용한다.

(2) 특별행위 분석을 통한 접근

1) 일상적인 업무행위 및 여가행위공간

아파트에서는 다양한 가족구성, 직업, 문화 등으로 주거공간 내에서 특별행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점차 도시인구의 수도권지역 이동과 전자 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해 재택근무는 늘어날 것이고, 주거공간 내에서 주생활영역과 적절히 분리된 재택근무 실에 대한 요구가 증가 할 것이다.

전통주택의 사랑채에서 행해졌던 행위 개념은 현대 오피스에서의 행위개념과 부합된다.

특별행위공간으로 특별실에 대한 활용도는 재택근무실, 노부모실, 취미 생활실(음악감상, 그림, 서예, 사진스튜디오 등), 손님 취침실 등으로의 이용이 가능하겠다.

따라서 주거공간 내에서 주생활(일상생활 공간)과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주 출입구와 근접한 위치에 전통주거공간에서 보여주던 안채와 사랑채의 채 구분을 응용한 별도의 공간(특별실)을 적용 제안한다.

특별실(별채)은 마당에 의해 주생활(본 채)공간과 분리되고 활용편이를 위해 별도의 화장실과 수납공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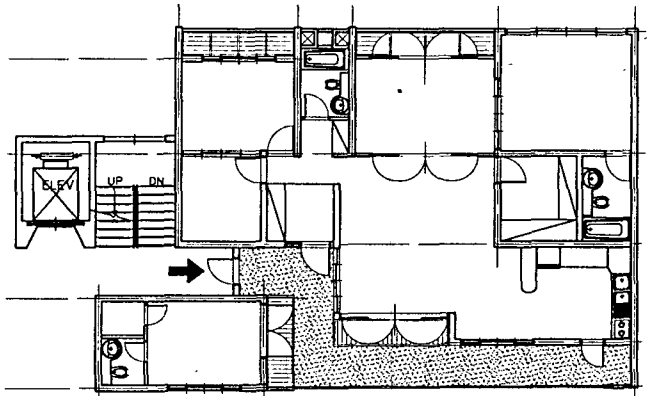
2) 비 일상행위공간

아파트에서의 비 일상적인 행위로는 명절의 가족 모임 등을 비롯한 손님 접대와 김장 등의 대규모 조리, 관혼상제 의식 등이 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발생 시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변화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부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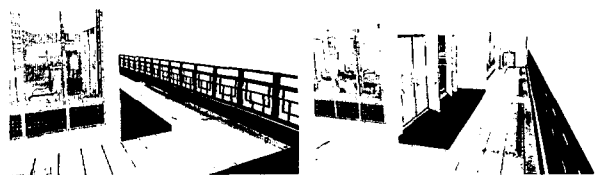
관혼상제 중 현재 주택 내에서 행해지는 의례로 제사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유무를 조사한 결과 25.6%의

가구가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거실이 6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안방(30.2%)순 이었다. 이는 거실이 주택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기도 하지만 과거의 전통 실내 공간에서 대청마루가 수행하던 기능이 관념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 그 외에 전통 식생활습관에서 오는 김장 담그기, 장 담그기 등 비 일상행위의 실현공간으로 가변 공간인 전통주거공간의 대청마루와 마당의 적용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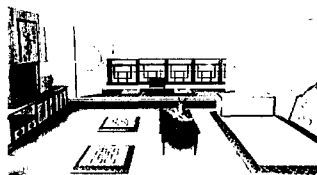
먼저 대청마루로서의 거실은 한실로서의 안방과 일직선상에 배치하고 그 공간구분은 사 분합문으로 한다. 이는 위에서 말한 대규모 손님접대와 관혼상제 의례 시에 공간확대사용을 위한 측면과 거실 전면 부의 사 분합문과 더불어 이들의 개방 시에는 이 주거공간 전면 부에서 후면 부 끝까지 전통주거공간의 특징인 공간의 연속성을 표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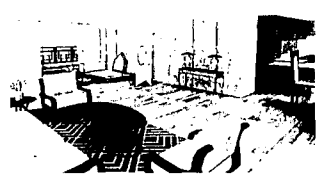
<그림 3> 제안평면



<그림 4> 마당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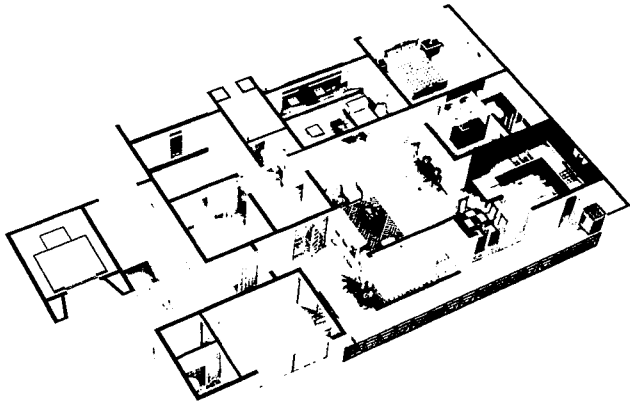


<그림 5> 누미루가 있는 한실 투시



<그림 6> 거실(대청마루)투시

6)윤복자·이지현, 한국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2),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2.6, p.26



<그림 7> 제안 아파트 조감도

4.3. 의장분석을 통한 접근

(1) 바다

진입 부의 마당은 전체적으로 전통문양이 새겨진 타일로 마감하고, 코너부분 등에는 자연 흙을 이용해 간이조경을 설치한다. 이는 아파트평면에 도입된 마당이 다용도 공간으로, 진입동선의 배분기능으로 개념적용(아파트의 구조특성상 전통주거공간에서의 마당처럼 완전한 실외공간이 될 수 없으므로) 한 것이기에 공간의 청결문제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통주거공간에서 처럼 전면 흙 사용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청마루에 해당하는 거실은 원목의 온돌마루판으로 우물마루구조로 마감하여 전통주거공간의 대청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자연미를 부여하고 여름의 생활 공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비닐 스위트마감은 그 재질 특성상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에 좌식행위 발생 시 끈적거림 등을 유발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위에 돛자리 등을 더불어 사용하는 불편함이 있다.

(2) 벽체

전통주거공간의 실내를 구성하는 벽은 대부분이 심벽 구조로 이는 벽에 벽지를 바르지 않으면 기둥, 인방, 문선 등의 수장재가 노출되어 보이는 입면 형태를 하였다. 심벽의 마감은 종이마감, 천마감, 회마감이 있다.

아파트의 실내 벽 구조는 대부분 조적식 벽으로 보통 벽돌을 1배 쌓거나 2배 쌓기 한 후 시멘트로 미장하고 그 위에 벽지로 마감한다. 근래에는 각 건설회사 마다 차별화 방법의 일환으로 벽의 일부분을 천이나 돌로 마감하기도 한다.

따라서 심벽의 마감재로 사용된 종이, 천, 회 마감 등은 아파트 조적벽의 마감재로 적용가능하며 그 제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현관입구와 거실사이의 벽은 회 마감으로 한다. 이는 현관 쪽에서는 조적식 벽구조가 그대로 노출되게 하고 거실 쪽을 부분 회 마감하여 전통주거공간에서 대청 벽의 느낌을 응용 제안한다.

현관을 통해 거실로 진입하면서 전면에 보이는 침실1의 드레스실 겸 전실의 외부벽은 천 마감으로 한다. 이는 전통주거공간에서 공간

에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고도 금구 장식이나 병풍의 그림 등을 통해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변화감을 느끼게 하여 공간을 한층 격조 있는 공간으로 연출했던 우리 선조들의 조형의식에 대한 응용으로, 제안하는 아파트 평면의 실내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천마감 하여 다른 벽과 차별화하고 상부에서 조명을 설치해 주거나 혹은 액자 등을 걸도록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형 아파트” 개발요소의 선정기준은 4장에서 고찰된 전통주거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에 비교적 근접하면서 전통주거공간의 특성을 표현해 줌과 동시에 변화되는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현재 아파트 평면의 변화를 통하여 응용도입이 가능한 요소의 우선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보았을 때 제안된 한국형 아파트의 개발요소들이 모두 적용되어 하나의 주거공간에 짜임새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50평형대 이상의 비교적 중·대형 평형이 요구되는 한계사항이 있다. 또한 내부 공간구조의 변화와 마감재의 다양화로 인한 원가비용의 상승 및 그 실험성으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선뜻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사항들은 개발요소의 패키지화를 통한 선택옵선제를 도입하여 작은 평형에서의 실현 가능성과 건설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며, 현재 아파트가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빌라를 선호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충분히 개발의 여지가 있다.

끝으로 더 이상은 주거공간에 있어서 전통성의 추구가 형태 답습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비록 실험적일지라도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전통주거공간의 깊은 이해를 통한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아파트가 개발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 출판사, 기문당, 1992
2. 강영구, 국제화와 문화적 민족주의, 나남 출판사, 1992
3.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4. 아모스라포포트,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1995
5. 대우건설, 미래주택관 설명 자료집, 1995
6. 이규태, 한국인의 생활구조, 기원원, 1991
7. 박영순 외 공저, 우리옛집 이야기, 1998
8.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9. 존나이스비트, 메가트랜드 2000, 한국경제 신문사, 1990
10.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2
11. 월간 주택저널,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1997. 5
12. 박선희, 조선시대 반가의 주생활과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1
13. 정진수, 한국의 온돌과 주택 평면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5